

野대野 주도권잡기 '현역 물갈이'로 승부

더민주 20% 공천 배제... 영입인사 광주 투입키로

국민의당 '뉴DJ 공천'... '새인물' 찾기 총력 체제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으로 야권 지형이 재편되면서 야권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 정태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양 당 모두 호남에서 혁신과 새인을 앞세운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탓에 '현역 물갈이'로 대표되는 인적쇄신 경쟁이 주목된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야권 지형이 재편됨에 따라 인적쇄신, 혁신경쟁을 통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적쇄신의 초점이 양 당의 전라지사, 요충지인 호남을 향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남 공천 과정에서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더민주 내부에서 '현역 물갈이'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5일 더민주 윤리심판원이 노영민, 신기남 의원에 대해 사실상 공천 배제 징계를 결정하면서 현역 물갈이 신호탄이 쏘아 올랐다는 평가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현역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혁신위원회의 공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민주 인적쇄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에 따라 하위 20% 공천 배제 물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의원들은 또다시 컷오프 대상자 포함여부를 놓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선 이상 다선, 중진 의원의 불출마나 협치 출마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8명의 지역구 의원 중 강기정·박해자 의원이, 전남은 11명의 지역구 의원 중 김성곤·우윤근·신정훈·김영록·이운석·이개호 의원 등 6명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는 최근 영입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오기형 변호사 등 신진 인물들을 대거 광주로 출마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통합을

선언한 국민의당 역시 '뉴DJ(김대중 전 대통령) 공천'으로 대변되는 현역 물갈이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당헌·당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공천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인적쇄신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호남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주장했던 천정배 의원이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뉴DJ'라고 표현해 온 인물들을 공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현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양 당이 '인적쇄신' 경쟁이 아닌 사실상 '무분별한 세 불리기' 경쟁에 몰두해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정치신진 모임인 '정치혁신한걸음 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양 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 경쟁을 중단하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더민주 일각에서는 외부수혈이라는 영양제 몇 대 맞고서 마치 병이 다 나은 듯이 착각하고 자만하는 모습마저 보여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더민주는 역량 있고 참신한 인물의 영입을 통한 세력·세대 교체 단행 등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떠나는 '文'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운데)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꼬여가는 쟁점법 협상... 결국 20대 국회로 가나

여야 기존입장 팽팽·총선 정국에 임기내 처리 난망

여야 간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협상이 1월 임시국회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이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선거법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이를 앞으로 다가온 29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선(先) 민생 후(後) 선거라는 기존 입장을 갖고 오는 29일 전까지 민생 법안과 경제 법안, 국민 안전을 지킬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전에 올리지 않으면 29일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민주의 여권이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으로 꼽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전날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는 등 여야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여야 원내협상이 더욱 후퇴하면서 다음달 7일까지인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주요 쟁점법안들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2월 임시국회로 쟁점법안들이 넘어간다면 4·13 총선 정국에 휩쓸리면서 결국 19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시간이 계속 흐르면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선거법 개정안이라고도 선별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파견근로자법 제정안과 서비산업발전법 제정안의 경우 시한에 쫓기기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선거법부터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민주' 정무직 당직자 출신 당원 9명 '국민의당' 입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직 당직자를 지낸 9명의 당원이 2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날 입당자는 정기남 전 원내대표 후보, 임재훈 전 조직본부장, 김희경·김무영 전 부대변인, 김남현·서원준 전 정책위 부의장, 김현배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박동규 전 사무부총장, 장화철 전 인터넷소통위원장 등 40~50대 인사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출마 예정자로, 가칭 '푸른정치실천연대'를 결성해 새정치 실천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대구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3번, 무소속으로 1번 등 모두 4번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상수 전 대구시 의회 의장도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4·13 총선 현장

"할증 탄력세 중단해 유류세 인하해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광주시 남구) 의원은 27일 "정부는 할증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즉시 중단해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제유가가 1배럴당 30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초저유가 사태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름값(휘발유 기



준)은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가 올랐을 때 과도한 세금부과를 통해 고유가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정부가 저유가로 인한 혜택에는 국민을 제외시키면서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당 정진욱, 광주 남구 출마선언

국민의당 정진욱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총선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의 새 숲은 새 부대에 새 사람이 담아야 한다"며 "사람이 달라야 새정치이고 사람이 바뀌어야 새 광주를 만들 수 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안철수, 천정배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우고



자 한다"면서 "정권교체, 야당교체, 선수교체로 상징되는 '희망교체 3총'의 주역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무기력 달라야 새정치이고 사람이 바뀌어야 새 광주를 만들 수 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안철수, 천정배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우고

"제조업 노동자, 명절 앞 임금체불 해결돼야"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7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제조업체 노동자들에게 대한 체불임금이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역 제조업 부문 체불임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148억원)에 비해 무려 36%나 늘어난 202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



는 대목으로, 노동자들 역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체들도 사정이 있었지만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선 안 되는 문제"라며 "관계기관은 연휴 전까지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송갑석, 광주 서구갑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27일 4·13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특권으로 누리고 군림하는 '갑질 정치'가 아니라 갑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치"라며 "법이 보장하고 상식이 허용하는 정치와 변화된 가치에 기반해 경쟁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민을 진정한 '갑'으로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학시절 독재로부터 국민의 생존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언급하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의 경쟁민주화를 저의 소명으로 삼고 남의 생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꿨습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열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